

英語 語彙 指導法

黃 彥 澤*

目 次

- | | |
|----------------|---------------|
| I. 序 論 | IV. 結 論 : 要 約 |
| II. 語彙 指導의 重要性 | |
| III. 語彙 指導 方案 | |
| 1. 多義語 | |
| 2. 表現型 | |
| 3. 轉換語 | |

I. 序 論

本稿의 목적은 (1) 英語 語彙 指導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第2章), (2) 學習者의 英語 語彙 力 강화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語彙 指導 方案을 제시하는 데 있다 (第3章).

英語(뿐만 아니라 기타 모든 言語) 學習의 주요 내용은 「發音」·「語彙」·「文法」의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 세 가지는 그 어느 한 가지도 소홀히 할 수 없는 重要한 學習 내용이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사이의 상대적 중요도는 英語 學習이 진전되어 나가더라도 변함이 없는 것일까? 만일 변함이 있다고 한다면, 語彙는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느 자리를 차지하게 될까? 이런 문제들을 통해서 語彙 指導의 중요도를 재음미해 보려는 것이 本稿의 목적(1)이다.

本稿의 목적(2)을 위해서 다루어져야 할 문제는 많다. 그러나, 本稿에서는 이 가운데서 다음의 세 가지 문제만을 골라, 그 指導 方案을 살펴보았다. 첫째는 多義語(곧, 둘 이상의 意味를 가진 單語)문제다. 곧, 多義語의 그 여러 가지 뜻을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다루는 것이 좋을까? 둘째는 語義 문제다. 곧, 意思疏通의 현장에서 어떤 單語를 사용하려 할 때, 어떤 형식을 통해서 그 語義를 익혀 두는 것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셋째는 轉換語(곧, 品詞만이 다른 品詞로 轉換된 單語)문제다. 곧, 轉換語의 語義를 비교적 簡易하게 익히는 방법으로서 어떤 방법이 있을 수 있는가?

II. 語彙 指導의 重要性

이 章에서는 發音·語彙·文法 사이의 상대적 중요도에 대한 일부 學者의 견해, 文敎部의 「英語科 教育 課程」(1981. 12. 31. 公布)에 내포되어 있는 뜻, 일부 中·高·大學生이 보는 눈 등을 분석해 보면서 그 중요도에 대한 結論을 내려보겠다.

發音·語彙·文法 사이의 상대적 중요도에 대한 Elliott L. Judd, R. H. Robins, Suzette Haden

* 師範大學

Elgin 세 學者의 論旨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¹⁾ 곧, 어떤 言語에서든지 統辭 規則이나 音韻 規則의 수는 有限이지만, 一般人的 能力을 고려할 때, 單語의 수는 거의 無限이다. 바꿔 말한다면, 基本的인 統辭 規則이나 音韻 規則은 모두 어릴 때(5세 전후까지) 習得하게 되지만, 單語는 일생을 통해서 習得해 나간다는 것이다.

이 세 學者의 견해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곧, 言語 習得의 初期에는 發音·語彙·文法이 모두 중요하나, 이 시기를 넘어서면(基本的인 發音과 文法을 익히고 난 다음부터는) 語彙가 가장 중요한 구실을 한다.

이번에는 文教部의 「英語科 教育 課程」을 살펴보자. 그런데, 이 教育 課程 중에는 發音·語彙·文法 사이의 상대적 중요도에 대해서 직접 언급한 내용은 없다. 따라서, 이 三者의 教育 내용에 내포되어 있는 뜻을 각각 분석해 봄으로써 三者 사이의 상대적 중요도를 결정해 보겠다.

「發音」의 教育 내용은 中·高校 全學年을 통해서 한결같이 「자음, 모음, 강세, 억양, 리듬 등을 포함한다」로 되어 있다.

「語彙」의 教育 내용은 주로 中學校는 各學年에서, 高等學校는 「英語 I」과 「英語 II」에서 각각 추가해서 가르칠 語數만을 제시하고 있다.

「文型·文法」의 教育 내용은 中·高校에 따라서 다르다. 곧, 中學校에서는 가르칠 文型和 文法 事項이 비교적 자세히 學年別로 제시되어 있다. 그런데, 高等學校의 「英語 I」에서는 이미 「학습한 문형·문법의 활용 범위를 넓힌다」라고만 되어 있고, 「英語 II」에서는 이 말에 다만 「난해한 것은 피한다」란 단서가 붙어 있을 뿐이다.

이상의 세 教育 내용을 서로 견주어 봄으로써, 筆者는 다음과 같이 發音·語彙·文法 사이의 상대적 중요도를 결정하고 싶다. 곧,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語彙, 그 다음이 文法, 그 다음이 發音이다.

이렇게 보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中學校 第 1學年 英語 教科書 한 권만으로도 「發音」의 教育 內容인 子音, 母音, … 등 다섯 가지의 기본적인 사항을 모두 익힐 수가 있기 때문에, 發音을 그 중요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결정했다. 바꿔 말한다면, 中學校 第 1學年 英語 教科書만 바른 發音으로 읽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發音의 기본적인 사항은 다 익혔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語彙」·「文型·文法」과는 달리, 「發音」의 教育 내용만이 中·高校 各學年을 통해서 동일하게 되어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둘째, 「語彙」는 中·高校를 통해서 學年마다 추가되지만, 「文型·文法」은 中學校에서만 추가되기 때문에, 語彙를 文法보다 그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결정했다. 바꿔 말한다면, 文法의 기본적인 사항은 中學校에서 다 배우게 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語彙는 中·高校를 통해서 계속 추가되기만 하기 때문이다.

教育 課程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살펴온 것을 앞에서 살핀 세 學者의 견해와 견주어 볼 때, 後者에서는 언급되지 않았던 發音·文法 사이의 상대적 중요도가 前者에서 밝혀진 셈이 된다. 곧, 文法이 發音보다 중요하다는 점이다. 결국, 發音·語彙·文法 사이의 상대적 중요도를 그 중요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부터 차례로 적어보면 「語彙—文法—發音」이 된다.

1) Elliot L. Judd, (1978) Vocabulary Teaching and TESOL: A Need for Reevaluation of Existing Assumptions. *TESOL Quarterly* 12, p. 71.

R. H. Robins, (1971) *The Structure of Language, Linguistics at Large*, New York, Viking, p. 30.

Suzette Haden Elgin, (1979) *What Is Linguistics*, 2nd ed., Englewood Cliffs, New Jersey, p. 136.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번에는 中·高·大學生이 發音·語彙·文法 사이의 相對的 難易度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조사·분석한 다음, 이 분석 결과를 이용해서 그 상대적 중요도를 알아보려고 한다.

다음, “표”는 위에서 말한 상대적 難易도에 대한 일부 中·高·大學生의 반응을 나타낸 것이다. 이 반응 조사에 응한 학생 및 그 수는 濟州大學校 師範大學 附屬 中學校 第2學年 120名(男 61名, 女 59名), 同 附屬 高等學校 第2學年 110名(男 61名, 女 49名), 同 英語教育科 第2學年 38名(男 7名, 女 31名), 計 268名이다.

難 易 度 反 應 表

1985.3.28 調查

學 年 難-中-易 性別	附 中 2			附 高 2			大 學 2			計			
	男	女	計	男	女	計			計				
發 - 語 - 文	11	6	37	4	3	8	7	9	11	29	33	56	21
發 - 文 - 語	10	10		%			1	%		2	%		23
語 - 文 - 發	17	9	42	25	10	49	45	12	20	53	73	111	41
語 - 發 - 文	9	7		%	11		3	%		8	%		38
文 - 發 - 語	3	3	41	5	7	53	48	4	7	18	22	101	38
文 - 語 - 發	11	24		%	16		25	%		3	%		79
計	(61)	(59)	120	(61)	(49)	110	38			268			

- ※ 1. 「難」 = 가장 어렵다; 「中」 = 中間이다; 「易」 = 다른 두 가지보다는 쉽다.
- 2. 「發」 = 發音; 「語」 = 語彙; 「文」 = 文法

이 難易度 반응표를 이용해서 發音·語彙·文法 세 분야 사이의 상대적 중요도를 결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곧, 學生의 입장에서 보아, 세 분야 중에서 가장 어렵다고 (또는, 가장 쉽다고) 생각되고 있는 분야가, 앞에서 살펴본 세 學者의 견해나, 文教部의 教育 課程에 내포되고 있는 의미와 서로 모순되지 않을 때 (바꿔 말한다면, 이론상으로도 그 타당성이 인정될 때), 이 「가장 어렵다고 (또는, 가장 쉽다고) 생각되고 있는 분야」를 「그 상대적 중요도가 가장 높은 (또는, 가장 낮은) 분야」로 본다.

위 “표” 「計」欄의 학생수 비율에서, 그 비율이 가장 높은 분야와 또 이 비율과 5% 이내의 차이 밖에 나지 않은 비율의 분야를 합쳐서 「아주 어렵다고 생각되고 있는 분야」로 본다면, 中·高·大學 別로 본 이 분야의, 분포 상황은 다음 “표”와 같다. (○ 標가 아주 어렵다고 생각되고 있는 분야)

分野	學校	中 學 校	高 等 學 校	大 學
發	音	○		
語	彙	○	○	○
文	法	○	○	○

곧, 中學校에서는 發音·語彙·文法の 세 분야 모두가, 高等學校에서는 이 세 분야 중에서 語彙 분야와 文法 분야가, 大學에서는 語彙 분야만이, 각각 아주 어려운 분야로 생각되고 있다.

그런데, 이 “표”에서 語彙 분야에는 ○ 표가 셋, 文法 분야에는 둘, 發音 분야에는 하나가 있다. 따라서, 「가장」 어렵다고 생각되고 있는 분야는 語彙, 그 다음이 文法, 그 다음이 發音이다. 이 結果는 文教部의 英語科 教育 課程 分析時, 그 마지막 부분에서 말한 「語彙—文法—發音」(세 분야 사이의 상대적 중요도를 그 중요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부터 차례로 적은 것)과 일치한다. 그러므로, 학생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세 분야의 중요도 順은 「語彙—文法—發音」이 된다.

여기에서 한 가지 주목하고 싶은 것은 英語 教育의 連繫性이다. 中·高·大學에서의 英語 教育은 각각 독립적으로 실시되는 것보다 學校 사이에서 어떤 連繫性을 지닌 가운데 실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령, 大學生이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語彙 분야라면, 이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 주려는 노력이 高等學校 英語 教育에 반영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高校生이 아주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語彙 분야와 文法 분야라면, 이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 주려는 노력이 中學校 英語 教育에 반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까지 고려에 넣을 때, 이 章에서 지금까지 논해 온 것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싶다.

- (1) 中學校에서는 發音·語彙·文法 指導에 거의 같은 비중을 둔다. 다만, 高學年으로 올라갈수록 發音 指導보다 語彙·文法 指導에 조금 더 비중을 둔다.
- (2) 高等學校에서는 發音 指導에도 유의하면서, 語彙·文法 指導에 중점을 둔다. 다만, 高學年으로 올라갈수록 文法 指導보다 語彙 指導에 조금 더 비중을 둔다.
- (3) 大學에서는 發音·文法 指導에도 유의하면서, 語彙 指導에 중점을 둔다.
- (4) 結論의으로, 語彙 指導는 中學校 第1學年부터 大學 최종 學年에 이르기까지 점차 그 강도를 더해 가면서 지속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III. 語彙 指導 方案

1. 多義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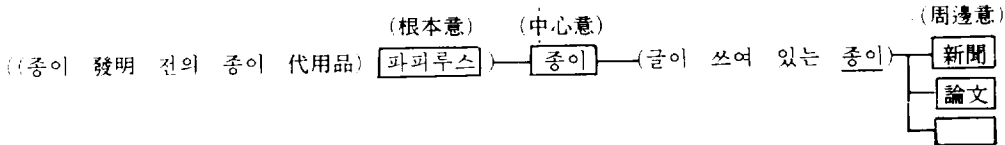
多義語의 그 여러 가지 語義를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다루는 것이 좋을까? 이 문제의 답을 찾아 보려는 것이 이 節의 목적이다.

多義語의 語義는 그 語義가 가지고 있는 「體系性」이란 觀點에서 指導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어떤 多義語든, 그 多義語가 갖는 여러 가지 語義는 하나의 체계를 이루고 있다. 바꿔 말한다면, 그 여러 가지 語義는 제각기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간에 어떤 關聯性을 지니면서 전체가 하나의 統合體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마치 始祖와 그 子孫으로 한 집안의 系統이 이루어지듯, 하나의 根本的 意味와 그로부터 派生되어 나온 여러 가지 意味로 한 多義語의 語義 系統이 이루어져있다는 것이다. 지금 이 「그로부터 派生되어 나온 여러 가지 意味」를 다시 中心的 意味와 周邊的 意味로 나눈다면, 결국, 多義語의 語義는 根本的 意味·中心的 意味·周邊的 意味로 나뉘면서 그 전체가 하나의 체계를 이루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위에서 말한 根本的 意味란 그 多義語의 語源이 나타내는 意味다. 또, 中心的 意味란 現用

意味 중 가장 母體가 되는 意味고, 周邊의 意味란 이 中心的 意味에서 派生되어 나온 意味다. 이를테면, paper (名詞)의 根本的 意味는 「파피루스」, 中心的 意味는 「종이」, 周邊의 意味는 (가령) 「新聞」·「論文」 등이다.

이 세 가지 意味 사이의 관계는 그림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 가령, paper (名詞)를 예로 들면, 그 그림은 다음과 같다. □ 속은 根本的·中心的 周邊의 意味고, () 속은 참고 사항이다.



이와 같은 그림을 「語義 系統圖」라 부른다면, 어떤 多義語든, 그 語義는 모두 다 이와 같은 語義 系統圖로 나타낼 수가 있게 된다.

그러면, 이와 같은 語義 系統圖를 만드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語義 선정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다. 語義 系統圖는 간결할수록 효과적이다. 여기에서 系統圖에 실을 語義를 선정하는 문제가 생긴다. 가령, sure (形容詞)의 語義는 「뉴우월드 데스크 英韓 辭典」(時事英語社: 1982) (이하, 「뉴우월드」)과 Longman Dictionary of Contemporary English (1982) (이하, LDCE)에 각각 다음과 같이 실려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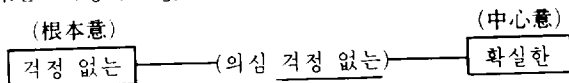
- 「뉴우월드」: ① 확실한, 틀림없는
 ② 꼭 [틀림없이]...하는
 ③ 확실한; 안전한, 견실한; 신뢰할 수 있는, (출처 따위) 믿을 수 있는

- LDCE : ① having no doubt
 ② certain (to happen)
 ③ certain (of having)
 ④ certain in effect; to be trusted

LDCE 의 ① having no doubt 의 뜻은 certain 이니, 결국, LDCE 는 네 가지 語義를 내세우고 있지만, 이 네 가지 語義에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뜻은 certain (확실한)이다. 또, 「뉴우월드」의 ② 에만 「확실한」이 없고, 나머지 두 가지 語義에는 「확실한」이 공통적으로 들어 있다. 그런데, 이 ② 의 「꼭 [틀림없이]...하는」은 「확실히...하는」과 그 뜻이 같다. 이상을 종합하면, 語義 系統圖에 실을 이 sure 의 語義는 「확실한」 하나만으로 충분하다고 말할 수 있다. 결국, 비록 위의 두 사전에는 그 語義가 셋 또는 넷이 실려 있지만, 語義 系統圖에는 「확실한」 하나만을 실으면 된다는 말이 된다. 이 결과를 이용해서 이 sure 의 語義 系統圖를 만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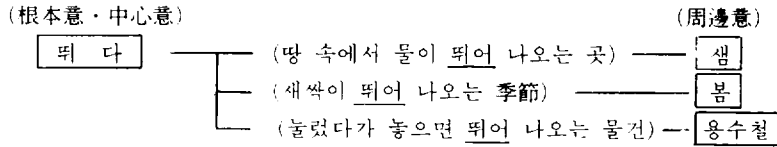
(1) sure (形容詞)의 語義 系統圖

(sure 는 secure (= se (= free from) + cure (= care) = 걱정 없는)의 姊妹語. 따라서, 그 根本的 意味는 「걱정 없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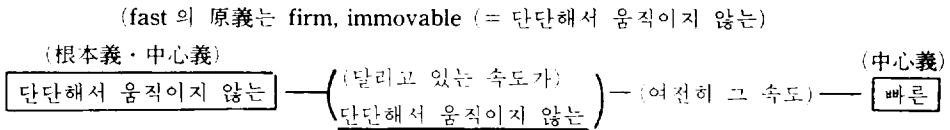


아 물론, 이렇게 해서 만든 語義 系統圖를 이용하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뜻이 포함되어 있다. 첫째, 겉으로 보기에 아무런 관계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多義語의 여러 語義도, 語義 系統圖를 만들어 보면, 그들 사이의 관계는 물론, 그렇게 보이는 이유까지도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게 된다. 가령, spring (名詞)의 語義 「샘」·「봄」·「용수철」 사이에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것처럼 보인다. 또, fast (形容詞)의 語義 「빠른」과 「단단해서 움직이지 않는」은 서로 반대가 되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 두 單語도 다음의 (2), (3) 처럼 각각 그 語義 系統圖를 만들어 보면, 어떤 경로를 거쳐서 그런 양상을 보이게 되었는가를 한 눈에 알 수 있게 된다.

(2) spring (名詞)의 語義 系統圖



(3) fast (形容詞)의 語義 系統圖



둘째, 多義語의 어느 한 語義를 기억하려 할 때, 그것만을 독립적으로 기억하는 것보다 語義 系統圖를 통해서 기억하는 것이 그 語義를 더 오래 기억속에 把持할 수 있다. 人間の 認知 構造는 「階層的」으로 구성되어 있다.²⁾ 포괄적인 개념 속에 그 下位 개념이 있고, 그 下位 개념 속에 또 그 下位 개념이 있고...하는 식으로 우리의 認知 構造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語義 系統圖는 한 多義語의 여러 語義가 하나의 「階層」 구조를 이루고 있음을 보여 주는 그림이다. 따라서, 語義 系統圖는 心理學的으로 보아도 우리의 認知 구조가 받아들이기 쉬운 형태를 가지고 있다. 곧, 기억하기 쉬운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또 語義 系統圖는 「說明」書가 아니라 「그림」이다. 마치 親戚 사이의 관계를 여러 번 말로 듣는 것보다 家系圖를 한번 보는 것이 이해가 빠른 것처럼, 多義語의 여러 語義 사이의 관계를 여러 번 말로 듣는 것보다 그 語義 系統圖를 한번 보는 것이 이해도 빠르고, 또한, 그것이 기억 속에 오래 간직되기도 할 것이다.

세째, 語義 系統圖 上의 여러 意味 중, 根本的 意味와 中心的 意味만을 중점적으로 기억한다. 가령, 앞에서 열거한 바 있는 paper (名詞)와 spring (名詞)의 周邊的 意味인 「新聞」과 「봄」이 學習 대상이 될 경우라도, paper에서 우선 생각해야 할 意味는 「파피루스」(根本的 意味)와 「종이」(中心的 意味)가 되고, spring에서 우선 생각해야 할 意味는 「뛰다」(根本的 意味·中心的 意味)가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고 난 다음, 「글이 쓰여 있는 종이」니까 「新聞」, 「새싹이 뛰어 나오는 季節」이니까 「봄」, 하는 식으로 생각을 연장시켜 나간다. 바꿔 말한다면, paper (名詞)나 spring (名詞)의 周邊的 意味가 무엇이든간에, 이 두 單語를 만들 때마다 각각

2) Stephen L. Yelon & Grace W. Weinstein, *A Teacher's Guide*, (1977) *Psychology in the Classroom* Auckland, McGraw-Hill, p. 153.

「파피루스」 종이), 「뛰다」를 우선 머리 속에 떠올린다는 것이다. 다만, 만일 根本的 意味(가령, 위의 「파피루스」)가 그 單語의 다른 語義를 理解하는 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이 根本的 意味를 생략하고 中心的 意味만을 기억하도록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곧, 英語 教育이나 英語 學習이란 관점에서 본다면, 單義語든 多義語든 모든 單語의 語義는 가급적 一語一義의 원칙에 입각해서 기억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一語一義의 원칙」이란 한 單語는 하나의 意味만을 갖는다는 原則이다. 이 「一語一義」의 「一義」에 해당하는 것이 (根本的 意味와) 中心的 意味다. 다만, 이렇게 해서 기억한 그 語義는 言語內的인 脈絡(곧, 文脈)이나 言語外的인 脈絡(곧, 사회적 脈絡) 속에 끼어 들어갔을 때, 비로소 그 實際的인 意味를 지니게 된다. 말하자면,

語義 + 脈絡 = 實際的 意味

란 等式이 성립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기억한 그 根本的·中心的 意味는 그저 이해 단계에서만 사용되고, 번역 단계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지게 된다. 가령, 다음과 같은 文章이 있다고 하자. 이 文章 속의 fast의 根本的·中心的 意味는, 앞에서 이미 보았듯이, 「단단해서 움직이지 않는다」이다.

The ship was fast on the rock.

이 文章의 뜻은, 이해 단계에서는 「배는 단단해서 움직이지 않았다, 바위 위에서」처럼 根本的·中心的 意味가 사용되었다. 그런데, 文脈으로 보아 「바위」는 「암초」를 가리키고, 「단단해서 움직이지 않았다」는 그 암초에 얹혀 있어서 나아가지도 물러가지도 못하는 상태를 묘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번역 단계에서는, 가령, 「배는 암초에 얹혀서 꿈쩍도 못하고 있었다」 등처럼, 위의 根本的·中心的 意味와는 아주 다른 표현이 나올 수 있는 것이다. 결국, 語義는 一語一義의 원칙에 의해서 기억하되, 그 기억한 語義는 실제 번역에서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英語 學習者에게 이해시키는 일이 이 一語一義의 원칙이 갖고 있는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 章에서 살펴 온 것을 종합하면서 多義語 指導法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1) 多義語의 指導는 語義 系統圖를 통해서 實施한다.
- (2) 語義 系統圖에 실려 있는 意味 중, (根本的 意味와) 中心的 意味는 이를 꼭 기억하도록 지도하되, 周邊的 意味는 前者(의 두 가지 意味)에서 유도해 내도록 指導한다. (어떤 文章에서, 指導 대상이 된 그 多義語 이외의 單語의 뜻을 모두 알고 있을 경우(根本的 및) 中心的 意味만 알고 있으면, 그 周邊的 意味를 추측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 (3) 教科書에 처음으로 나온 多義語의 語義가 中心的 意味일 경우에는, 語義 系統圖의 제시 없이 그저 그 意味만을 指導한다.
- (4) 教科書에 처음으로 나온 多義語의 語義가 周邊的 意味일 경우에는, 語義 系統圖를 提示하고, 그(根本的 및) 中心的 意味에서 그 周邊的 意味가 나온 경로를 보여 줌으로써 그 意味를 指導한다.
- (5) 이미 學習한 多義語라 할지라도, 그것이 새로운 周邊的 意味로 사용되고 있을 경우에는, 이 意味도 위(4)의 요령으로 指導한다. 다만, 이 경우의 語義 系統圖에는 새로운 周邊的 意味 뿐만 아니라 이미 學習한 周邊的 意味도 실는다.

2. 表現型

英語 單語와 英文法만 알고 있으면, 文法的인 英文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가령, 「sure = 확실한」을 알고, 또 한편으로는 英文法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하면, 이 單語를 사용한 文法的인 英文을 만들어낼 수 있겠느냐의 문제다. 아무래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대답이 나올 것 같다. 어떤 單語를 英文 속에 끼어 넣으려 할 때, 「그 單語의 文法」을 모르면, 非文法的인 英文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 「그 單語의 文法」 중에서 「그 單語의 「表現型」」을 골라, 그 內容 및 英語 教育 現場에서의 活用法에 대해서 살펴보려는 것이 이 節의 목적이다.

어떤 單語의 「表現型」이란 그 單語를 중심으로 한 表現 構成上的 類型을 말한다. 가령 sure (확실한)의 表現型 몇 가지를 例文과 함께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아래 表現型에서 等號 오른쪽 () 속은 表現型의 뜻을 해설한 것으로서, 이 해설은 번역 단계의 表現이 아니라 이해 단계의 표현이다.

- ① (사람) be sure = (확실하다고 생각)
I think so, but I'm not sure.
- ② (사람) be sure [that] (節) = (확실하다고 생각)
I'm sure he'll come.
- ③ (사람) be sure of (名詞) = (확실하다고 생각)
You may be sure of his honesty.
- ④ (사람) be sure (wh- 節) = (확실히 앎)
Are you quite sure who she is?
- ⑤ (사람) be sure (wh- 語) to (do) = (확실히 앎)
I'm not sure whether to go.
- ⑥ (사람·일) be sure to (do) =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이 확실)
He is sure to come.
It's sure to rain.

곧, sure 의 앞뒤에 꼭 올 言語 形式까지 포함한 類型이 이 sure 의 表現型이 된다. 이 表現型에서 한 가지 덧붙여 두고 싶은 것은 表現型의 해설에 sure 의 中心的 意味인 「확실(한)」이 꼭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語義 系統圖를 통해서 기억한 그(根本的 및) 中心的 意味가 그 表現型 속에서 살아 있음을 명시할 수 있다.

語義 系統圖를 통해서 기억한 (根本的 및) 中心的 意味는 이 表現型을 통해서 指導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韓國語 의식에서 나오기 쉬운 非文法的이거나 부자연스러운 英語 표현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가령, marry (결혼하다)를 예로 들 때, 「...와 결혼하다」란 韓國語 의식 때문에 “A marries with B”처럼 非文法的인 英文이 나오기 쉽고, 또 marry 는 自動詞로도 쓰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지난 週에 결혼했다」를 “They married last week”처럼 그다지 自然스럽지 못한 英文이 나오기 쉽다.³⁾ 이런 경우,

3) Michael Swan. (1980) *Practical English Usag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p. 372.

- (1) (사람) marry (主語와는 異性인 사람) = (누구와 結婚하다)
 (2) (한 사람 · 두 사람) get married = (結婚하다)

와 같은 表現型을 제시하고서 이에 꼭 맞도록만 英文을 만들게 指導한다면, 위와 같은 非文法的이거나 부자연스러운 英文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물론, 單語 중에는 이 表現型이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은 이러한 表現型을 이용하는 편이 單語를 활용하는 데 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單語다. 가령, animal (動物)은 可算 名詞로서의 일반적인 용법만 알고 있으면, 그 외의 특별한 表現型은 만들 필요가 없다. 말하자면, 이 單語에 대해서는 그 語義와 可算 名詞로서의 用法만 알고 있으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breakfast (朝飯)의 경우는 조금 다르다. 가령, breakfast 를 「먹다」라고 할 때의 「먹다」에는 eat 또는 have 가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 單語의 表現型은

(사람) eat (또는 have) breakfast = (朝飯을 먹다)

또는, 일반적으로

(사람) eat (또는 have) (飲食) = (飲食을 먹다, 마시다)

처럼 될 것이다. 따라서, 이 表現型을 알고 있으면, have (breakfast, lunch, dinner, a meal, tea, coffee, a drink, a beer, a glass of wine)처럼 활용하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사실, 이와 같은 활용 능력을 길러 주는 것이 語彙 指導의 한 목적이 된다. 앞서서도 말한 바 있지만, 語彙 學習은 一生을 통해서 진행된다. 언제까지라도 教師가 그 指導를 담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學習者가 스스로 語彙 공부를 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될 때가 온다. 따라서, 그럴 때를 전제로 한 指導가 필요하게 된다. 가령, 다음과 같은 文章이 있다고 하자.

She asked him to wake her at 6 o'clock.

지금 이 文章을 만들어 내려고 하면, 代名詞는 제외하고, 적어도 다음의 세 가지 表現型은 미리 알고 있어야 할 것이다.

- (1) (사람) ask (다른 사람) to (do) = (어떤 행동을 해 줄 수 없겠느냐고 묻는다 → 해 달라고 부탁)
 (2) (사람) wake (다른 사람) = (깨우다)
 (3) at (時刻) = (몇 時에)

결국, 장차 學生이 스스로 英語 語彙 공부를 효과적으로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 주기 위해서는, 평소의 英語 指導 과정에서 이와 같은 表現型 중시의 指導를 실시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한다.

이상, 單語의 表現型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이 表現型과 앞 節에서 살펴본 語義와의 두 가지가 英語 單語 공부의 核心的인 자리를 차지한다. 사실, 發音과 綴字를 제외한다면, 英語 單語 공부란 바로 그 語義와 그 表現型の 공부라고 말해도 그리 지나치지는 않을 것이다.

3. 轉換語

한 單語가 둘 이상의 品詞로 사용되는 경우 그 둘 이상의 品詞 중에는, 역사적으로나 또는 사용 빈도상으로 보아, 가장 中心的이라고 볼 수 있는 品詞가 하나 있다. 本稿에서는 이 中心

的이라고 볼 수 있는 品詞로 사용되었을 때의 單語를 그 單語의 中心語라 부르고, 그 외의 品詞로 사용되었을 때의 單語를 그 單語의 轉換語라 부르기로 한다. 가령, rain의 中心的인 品詞는 名詞이기 때문에, 名詞 rain은 單語 rain의 中心語가 되고, 動詞 rain은 單語 rain의 轉換語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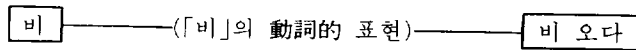
이 中心語의 語義와 轉換語의 語義사이의 관계, 또 이 관계를 이용한 轉換語의 語義 指導法 등에 대해서 살펴보려는 것이 이 節의 目的이다.

中心語의 語義 (A)와 轉換語의 語義 (B)를 서로 이어 주는 橋梁의 구실을 하는 개념으로서 「해당 品詞의 일반적 표현」(X)의 존재를 인정한다면, A와 B사이의 관계는

$$(1) \quad A + X = 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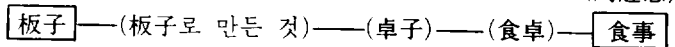
로 나타낼 수 있다. 가령, rain (비)와 rain (비 오다) 사이의 관계는

(2) (中心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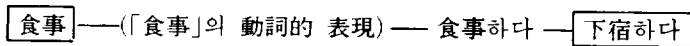
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轉換語의 語義가 中心語의 中心的 意味에서 派生되어 나오는 경우의 예다. 또, board (板子—食事)와 board (下宿하다) 사이의 관계는

(3) ① (中心意)



(周邊意)

② (周邊意)



로 나타낼 수 있다. 이것은 轉換語의 語義가 中心語의 周邊의 意味에서 派生되어 나오는 경우의 예다.

이상 살펴 온 「A + X = B」를 전제로 할 때, 다음과 같은 轉換語의 語義 指導法을 생각할 수 있다.

첫째, 中心的 意味만을 기억하고, B는 A + X = B를 통해서 유도해 내도록 指導한다. 가령, rain (비 오다) (B)는, rain (비) (A)가 中心的 意味이기 때문에 이 A만을 기억하고, B는 「A의 動詞」라는 전제하에 A에서 유도해 내도록 指導한다는 것이다. 또, board (下宿하다) (B)는, 이 單語의 中心的 意味가 「板子」이기 때문에 이 「板子」만을 기억하고, B는 「板子 → 食卓 → 食事 → 「食事」의 動詞」라는 派生 課程을 통해서 유도해 내도록 指導한다는 것이다. 바꿔 말한다면, 中心語가 되든 轉換語가 되든, rain이나 board란 單語를 만날 때마다 각각 항상 「비」, 「板子」가 다른 어떤 語義보다도 먼저 머리 속에 떠올라 오도록 指導한다는 것이다. 곧, 「一語一義의 원칙」에 입각한 指導法이다.

둘째, 轉換語의 語義는 그 表現型을 통해서 기억하도록 指導한다. 다음과 같은 英文이 있다고 하자. 각 英文 중, ①은 英文, ②는 그 表現型, ③은 ②의 뜻이다.

(4) ① I'm boarding with a friend.

② (사람 A) board with (사람 B)

③ A는 B의 집에 하숙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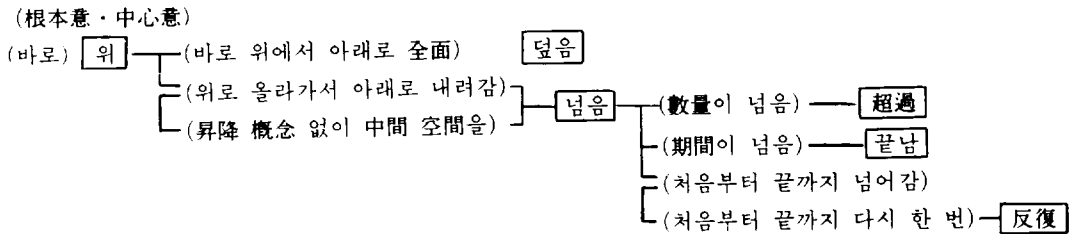
- (5) ① Four teachers board at Mrs. Jones's.
- ② (사람 A) board at (집 H)
- ③ A는 H에 하숙하다.
- (6) ① Mrs. Jones board four teachers.
- ② (사람 A) board (사람 B)
- ③ A는 B를 하숙시키다.

이들 (4), (5), (6)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다음과 같은 말을 할 수 있다. 곧, ① 속의 board는 모두 다 「食事(→下宿)」이란 개념을 핵심으로 한 動詞다. 그런데, 이들 세 예에서 英語學習者가 기억해야 할 것은 ② 다. 이 ②를 수학의 公式처럼 활용함으로써 ①과 같은 英文을 수없이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 ②에서 「board = 板子(→食事)」만 알고 있으면, ③을 推定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들 예문 하나하나를 기억하기보다 「board = 板子(→食事)」와 이 單語의 品詞, 그리고 그 表現型만 기억하고 있으면, 이 單語가 어떤 品詞로 사용되었는지에, 이 單語를 文法的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이 된다.

따라서, 비록 轉換語라 하더라도, 이를 中心語와 다르게 다루기보다 그 中心語와 轉換語를 한 데 묶어, 전체적으로 그 뜻을 간결하게 기억하고, 이 간결한 뜻에서 출발, 그 表現型을 통해서 그 單語의 용법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英語 語彙 공부 또는 指導의 효과적인 방법이 아닌가 생각한다. 실령 그 中心的 意味에서 다소 거쳐야 할 경로가 있다 하더라도, 오직 中心的 意味에서 출발해서 그 單語의 실제적인 쓰임을 알려고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뜻이다. 그러면, over를 예로 들어 이 기억의 간결성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이 over는 韓國의 現行 中學校 第1·2·3學年 英語 教科書에 副詞·前置詞·形容詞로 나와 있는 單語다. 이들 教科書에서 사용되고 있는 뜻만을 염두에 두면서 만들어 본 이 over의 語義 系統圖가 다음의 (7)이다. 또, 그 다음의 (8)~(11)의 각 ①은 이들 教科書에 나와 있는 文章으로서, 각 文章 끝의 (2-89) 등은 第2學年 英語 教科書 p. 89 등을 나타낸다. 그리고, 각 文章에서 ②는 表現型, ③은 그 表現型의 뜻이다.

(7) over (副·前·形)의 語義 系統圖



(8) ① It was much too small to take him and all the animals over to the other side at one time.

(2-89)

② (사람·運送 機關 A) take (사람·물건 B) over [方向 C]

③ 넘음→A는 B를 中間 空間을 넘어서 [C로] 運搬

(9) ① Come and sit over here. (2-69)

② over here

- ③ 넘음→中間 空間을 넘어서 (over) 여기 (here)
- (10) ① The house is over there across the river. (2-95)
 ② over there
 ③ 넘음→中間 空間을 넘어서 (over) 저기 (there)
- (11) ① He said it over and over. (2-112)
 ② over and over
 ③ 反復→反復 強調→몇 번이고 反復
- (12) ① No fish can fly over mountains. (2-125)
 ② (進行 表示 動詞 A) over (名詞 B)
 ③ 넘음→B 위를 넘어서 A 함
- (13) ① The moon was over the mountain. (2-129)
 ② (存在 表示 動詞 A) over (名詞 B)
 ③ 위→B 위에 있는 狀態
- (14) ① A young cloth-seller and a big roll of cloth over his shoulder. (3-29)
 ② (狀態 表示 動詞) over (名詞 B)
 ③ 덮음→B를 全面 덮은 狀態
- (15) ① I hope I'll be able to meet people from all over the world. (3-173)
 ② all over the world
 ③ 덮음→全面 덮음(all over)→全世界 (all over the world)
- (16) ① The full marathon course is over 40 kilometers. (2-102)
 ② over (數 A)
 ③ 超過→A를 넘는 (超過하는) 數
- (17) ① The summer was over. (1-153)
 ② (期間 A) be over
 ③ 끝남→A가 넘음 (끝남)

이상의 (8-17)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語義 系統圖 (7) 에서 「超過」·「끝남」·「反復」은 「넘음」에서 유도해 내도록 노력해 본다면, 결국, (7) 에서 일차적으로 기억해 둘 語義 「위」·「덮음」·「넘음」의 셋이 된다. 그런데, 이 셋 중에서 「덮음」과 「넘음」도 「위」에서 派生되어 나온 것이니, 결국, 「위」 하나만을 기억하고, 表現型에 따라서 이 over 의 뜻을 「위」에서 유도해 내도록 하는 것이 실제적이라고 본다. 가령, 위 (17) 은 over 가 맨처음 나온 文章이다. 그런데, 그저 이 文章을 「여름이 지나갔다」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왜 여기의 “be over”가 「지나갔다」란 뜻을 갖게 되었느냐에 대해서 이해한다는 것은 第2學年 이후에서 나오는 이 over 의 다른 뜻을 이해하는 데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IV. 結 論 : 要 約

英語 學習의 주요 내용을 「發音」·「語彙」·「文法」으로 나눈다면, 이 세 가지 사이에서 그 상대적 중요도가 가장 높은 것은 「語彙」이다. 따라서, 이 語彙 指導는 中學校 第1學年부터 大學 최종 學年에 이르기까지 점차 그 강도를 더해 가면서 持續적으로 實施되어야 한다.

本稿에서는 이 語彙 指導에 관한 사항 중, 多義語의 指導, 表現型의 活用法, 轉換語의 語義 指導法의 세 가지를 골라 그 내용을 살펴보았다.

多義語의 指導는 語義 系統圖를 통해서 실시한다. 이 系統圖 上에는 根本的 意味와 中心的 意味 그리고 周邊的 意味가 실리게 되는데, 이 세 가지 意味 중, 學生으로 하여금 기억하도록 하는 語義는 根本的 意味와 中心的 意味다. 周邊的 意味는 이들 意味에서 유도해 내도록 한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一語一義의 원칙을 最高度로 살리는 방향으로 多義語 指導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語義 기억의 經濟性을 살릴 수 있게 된다.

語義 系統圖를 통해서 기억한 (根本的 및) 中心的 意味는 그 表現型을 통해서 指導하는 것이 좋다. 어떤 單語의 表現型이란 그 單語를 중심으로 한 表現 構成上의 類型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單語의 文法에 해당한다. 결국, 英文 單語 공부란 그 語義와 그 表現型의 공부라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轉換語의 語義 指導法으로서, 첫째, 中心語의 中心的 意味만을 기억하고, 이 意味에 轉換語의 品詞가 갖는 一般的 意味를 더한다. 一語一義일 원칙에 입각한 指導法이다 둘째, 轉換語의 語義 역시 그 表現型을 통해서 기억하도록 指導한다.

Summary**Teaching English Vocabulary**

O. T. Hwang

The following suggestions are advanced as to the teaching of English vocabulary. First, meanings of polysemous words can be taught through tree diagrams of word meanings. In these diagrams three kinds of meanings are distinguished: primary, central, and marginal. Of these three the meanings to be remembered by the student are primary and central meanings. The marginal meaning should be traced back through word-meaning diagrams.

Second, primary and central meanings should be learned through expression patterns, that is patterns of expression construction around the word concerned. These expression patterns might be considered as the grammar of words. And this grammar together with the word meaning forms the core of vocabulary learning.

Third, words converted into other parts of speech can be taught as one of the central words that is, words from which the other parts of speech converted. And the meaning of the converted word can be treated as one of the meanings of a polysemous word (=a central word). Of course, these meanings of converted words should be taught through expression patterns, as said in the preceding paragraph.